

## 캘리포니아, 신축 건물에 태양열 시스템 설치 의무화

<https://www.energy.ca.gov/news/2021-08/energy-commission-adopts-updated-building-standards-improve-efficiency-reduce-0>

[https://www.energy.ca.gov/sites/default/files/2021-08/CEC\\_2022\\_EnergyCodeUpdateSummary\\_ADA.pdf](https://www.energy.ca.gov/sites/default/files/2021-08/CEC_2022_EnergyCodeUpdateSummary_ADA.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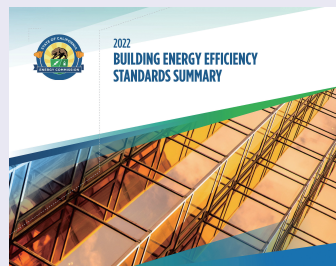
<https://archinect.com/news/article/150277577/california-to-mandate-solar-panels-for-new-buildings>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EC)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신개축 시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2022 에너지 코드(Energy Code)’를 채택하였다. CEC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70%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번 기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신축 상업용 건물과 고층 주거용 건물에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번 조치의 대상 건축물도 호텔, 사무실, 소매점, 식당, 학교, 식료품점 및 극장, 강당, 컨벤션센터와 같은 시민 공간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새로운 에너지 코드는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건축물에 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가스로 구동되는 시스템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고 탄소 배출이 적은 열펌프 기술을 활용토록 장려한다. 둘째, 단독 주택에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태양열 발전 시스템과 저장 배터리 의무화를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 기준을 강화한다.

CEC는 2022 에너지 코드가 향후 30년 동안 15억 달러(약 1조 7,594억 원)의 소비자 편익을 가져오며, 1,000만 메트릭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연간 약 220만 대의 차량이 운행하지 않았을 때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다.

이번에 채택된 2022 에너지 코드는 캘리포니아 건축물기준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 CBSC)에 제출되어 올 12월 검토를 거치게 되며, CBSC의 승인 후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2022 에너지 코드

출처: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2021). 2022 Build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s Summary.